

1개 농촌지역의 노인 건강 실태와 일상생활 행태에 관한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위 자 형

= Abstract =

A Study on Health Care and Daily Life of Aged Peoples in a Rural Area

Cha Hyung Wi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In order to find out the status of Health Care and Daily life of Aged peoples in rural area, a study carried out, through analyzing the datas of health screening examination for 304 persons and questionaired survey for 242 persons out of 586 old persons in a rural community, Su-Dong Myun, Nam-Yang-Ju Kun, Kyung-Gi Do, Korea, during the September of the year of 1987 and the October of the year of 1988.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

- 1) Out of 242 respondents in 1988 survey, 67.4% of them was complained of suffering sickness and out of 304 old persons nealth examined in 1987, 68.1% of them also nad suffered from more than one kind of illness, in the other words two-thirds of old persons in study rural area are complaining their health problems to-day.
- 2) The disease order of old persons, found through health examination was degenerative joint disease(30.8%), chroinic gastritis(13.5%), diabetes mellitus (7.2%), hypertension(6.3%), anemia(5.8%) and chronic bronchitis(4.8%) respectively.
- 3) The rate order of receiving treatment or care by first choice in sick old persons was drug stores(73.1%), medical facilities(16.1%) and just waiting uniril getting well without any medical care(9.1%).
- 4) The rate of favorite foods for old persons were 50.4% in greens and 38.8% in meats in total, and 53.6% in meats among males and 70.0% in greens among females.
- 5) The food order of the favorite taste for old persons was suitable taste(23.1%), hot taste(15.3%), sweet taste(14.5%), hot and salty taste(10.8%) and hot and sweet taste(9.9%) respectively.
- 6) The habitually smokling rate was 76.8% in male and 50.0% in female and the drinking rate was 74.1% in male and 38.5% in female.

- 7) Out of 242 respondents, 77.3% of them are living with son and grandson together within same family, 17.3% of them are living with wife or husband and 5.4% are living alone.
- 8) In the religion of respondents, the rate order of believer was buddist(38.9%), christian(13.2%), and catholic(2.1%).
- 9) The satisfactory rate for daily life circumstance was 59.1% out of 242 olol personus.
- 10) Out of 242 responodents, 83.1% of them are still working in the farms and houses around every day.
- 11) The place order of rest for daily pleasure was own house(54.5%) and “No-In-Jung” or old aged peoples hall(31.3%) in male, and own house(73.9%) and friend’s house(20.8%) in female.

서 론

1960년대이래 급속하고 꾸준한 경제발전과 산업 사회화 과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여러영역에 많은 변화 발전을 가져왔다.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생활환경과 수준이 변화되고 개선되었으며 의학의 개념이 변화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였으며 보건위생문제가 또한 어느 수준까지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동은 우리나라에서의 인구증가를 둔화시킨 동시에 인구동태측면에서도 종전의 고출생, 고사망, 유형(피라밋형)에서 저출생, 저사망의 유형(종형)으로 서서히 전환됨으로써 197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 우리생활주변에도 노인에 대한 관심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노인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은 노인인구가 그 절대수에 있어서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데다 더욱이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젊은 인구계층의 도시전출로 인한 노인인구수의 상대적인 증가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비교적 낮은 사회적 정년 연령과 긴 노후 생활과 관련하여 볼때 노후의 경제 활동과 생활수단, 노인 부양, 노년기 건강유지, 노인의 여가생활등 여러가지 문제가 가정이나 사회에서 빈민과 갈등의 연속 현상으로 표출됨으로써 이 노인문제야말로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노년기의 건강관리문제는 노인입장에서의 정신적 허약성으로 말미암아 여러형태의 걱정, 불평, 욕구불만, 공포등 심리적 갈등을 쉽게 일으키게 되며

이러한 마음의 지속적 긴장상태는 노인의 콤플렉스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육체적인 면에서는 질병의 증상이 분명치않고 병의 회복이 늦으며 합병증이 많아 동시에 둘 또는 셋이상의 질환이 많고 젊은 인구계층의 건강관리양상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체계 수립은 노인의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 향상시킴으로써 노인 개개인 생활환경에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가정, 나아가서 국가사회전체의 경제발전의 이르기까지 중요한 기반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때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도처에 많이 안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농촌지역 노령인구의 건강관리실상과 일상생활습관 등을 조사분석함은 노인 계층인구에 대한 보건관리의 필요성향 도출에 매우 의의있다하겠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자료가 다른 농촌지역 노인 건강관리 사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에 보고한다.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 조사지역 배경

이 조사지역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은 1963년에 신설된 면으로 서울에서 춘천에 이르는 경춘가도인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마석우리에서 북쪽으로 약 10km에 위치한 산간 농촌이다.

인구 4591명 1151세대(농가비율 78.4%) 19개 행정리(22개 자연부락)의 조그마한 면단위 지역사회이며 면적은 5800ha이나 경작지가 15%에 불과하고 임야가 80%로 대부분이며 잡지가 5%인 전형적인

우리나라 산간오지지역으로 무의면 소지가 높은 지역이다.

동 지역은 1972년이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이 농촌지역사회의학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의료 봉사활동과 학생실습장으로 발전시켜온 지역이다. 그간에 정부는 1980년 6월부터 1982년 8월까지 보건지소장 요원으로 공중보건의를 파견한 바 있었고 4년 후인 1986년 6월부터 다시 공중보건의를 파견하여 정부주도하에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남양주군과의 협약에 따라 수동면 보건지소의 기능발전을 지도하면서 의과대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보건실습장으로 발전시키고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지원하에 1971년 주민자제조직으로 지역사회개발 보건회를 발족시켜 수동면 전 세대를 대상으로하여 정부의 의료보험 실시 전단계까지 주민의료비 공제활동을 하였으며 각 가정과 보건지소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 건강원제를 두어 보건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보건의료문제를 그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스스로가 보건지소와 함께 공동 노력하여 발전시켜왔다.

2.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1987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기간

중에 수동면 보건지소 노인보건 관리계획으로 실시한 60세이상 노인 586명중 자발적으로 건강검사에 참여한 304명의 노인에 대한 건강검사 자료와 1988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기간 중에 노인 586명중 표본추출한 242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의 실상과 일상생활습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성적 및 고안

1. 노인건강상태

설문조사대상 농촌노인의 건강상태는 Table 2에 보인 바와 같이 조사대상노인의 32.6%만이 몸이 건강하다고 하였으며 67.4%가 몸이 아프다고 하였다. 이 아픔의 상태를 시간적 개념에서 살펴보면 “가끔 아프다”가 44.2%로 가장 높고 다음이 “자주 아프다” 14.5%, “계속 아픈 상태다” 8.5% 순이었다.

몸이 아프다고 대답한 노인 67.4%는 Table 3의 수동면 노인 건강검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질병보유자수 68.1%와 비슷한 율으로써 농촌노인의 2/3가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건강검사결과 발견된 환자중 한가지 병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46.7%로 가장 높은 율이었고 두가지병을 가지고 있는 자는 17.4%로 다음이었으며 세가지병을 가지고 있는 자는 4.0%였다.

Table 1. Number of old persons in study area

Age	Total Number of subject	Number of subject health-examined	Number of subject responded to survey
60-64	193	64	57
65-69	205	103	55
70-74	129	79	65
75 and over	59	58	65
Total	586	304	242

Table 2. Health condition of the survey respondents

Health condition	Sex		total (%)
	Male (%)	Female (%)	
Be healthy	42 (37.5)	37 (28.4)	79 (32.6)
Be cil occasionally	52 (46.4)	55 (42.3)	107 (44.2)
Be ill frequently	11 (9.8)	24 (18.5)	35 (14.5)
be ill continuously	7 (6.3)	14 (10.8)	21 (8.7)
Total	112 (100.0)	130 (100.0)	242 (100.0)

Table 3. Results of health screening examination for old persons

Results of physical examination		Distribution of diseases(%)	
With disease	207 (68.1)	Degeerative joint disease	62 (30.0)
one disease	142 (46.7)	Chronic Gastritis	28 (13.5)
two disease	53 (17.4)	Diabetes mellitus	15 (7.2)
three disease	12 (4.0)	Hypertention	13 (6.3)
Healthy	97 (31.9)	Anemia	12 (5.8)
		Chronic bronchitis	10 (4.8)
		Others	67 (32.4)
Total	304 (100.0)	Total	207 (100.0)

Table 4. Type of medical care

Type of medical care	Sex		Total(%)
	Male(%)	Female(%)	
Visiting drug stores	81 (72.3)	96 (73.8)	177 (73.1)
Visiting doctors	21 (18.8)	18 (13.9)	39 (16.1)
Waiting and/or enduring untill getting well	8 (7.1)	14 (10.8)	22 (9.1)
Others	2 (1.8)	2 (1.5)	4 (1.7)
Total	112 (100.0)	130 (100.0)	242 (100.0)

Table 5. The kind of favorite food stuff

Kind of food stuff	Sex		
	Male(%)	Female(%)	Total(%)
Meats	60 (53.6)	34 (36.2)	94 (38.8)
Greens	31 (27.7)	91 (70.0)	122 (50.4)
Fishes	18 (16.1)	2 (1.5)	20 (8.3)
Others	3 (2.6)	3 (2.3)	6 (2.5)
Total	112 (100.0)	130 (100.0)	242 (100.0)

발견된 환자를 질병별로 보면 퇴행성 관절질환이 3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만성 위염 13.5%, 당뇨병 7.2%, 고혈압 6.3%, 빈혈 5.8%, 만성 기관지염 4.8% 순이었다.

설문조사대상노인의 질병관리상태를 보면 Table 4에 보인 바와 같이 설문 응답자의 대다수인 73.1%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는다”라고 하였으며 16.1%가 “의사를 방문한다”라고 하였다. 특이한 것은 아직도 “병이 나올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가 9.1%였으며 1.7%는 “된장이나 소금을 먹는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질병관리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가 우리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미치는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보건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당면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2. 기호식품과 일상 생활습관

설문 조사 대상노인의 기호식품류를 보면 Table 5에서와 같이 “나물류”가 50.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육고기류” 38.8% “물고기류” 8.3% 순이었다.

기호식품류를 성별로 보면 남자에 있어서는 “육고기류”가 53.6%로 가장 높았으며 여자에 있어서는 나물류가 70.0%로 가장 높은 율을 보였다.

좋아하는 음식물을 맛별로 분류하면 Table 6-1에 보인 바와 같이 맵고, 달고, 짠고, 신것이 아닌 적당한 음식물이 23.1%로 최고율을 보였고, 다음이 매운 음식물 15.3%였으며 그 다음이 단 음식물 14.5% 맵고 짠 음식물 10.8%, 맵고 단 음식물 9.9%, 맵고 신음식물이 4.1%, 짠음식물이 3.7%, 신 음식물 3.3% 순이었다.

한가지 또는 여러가지 맛을 다같이 좋아한다고 할 때는 매운 맛이 반드시 들어가야한다는 응답자가 48.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단맛이 반드시 들어가야한다는 응답자가 36.8% 짠맛이 들어가야한다는 응답자가 26.0% 순이었다. 특히 매운맛에 있어

Table 6-1. Favorite taste of food

Sex		Favorite taste		
		Male(%)	Female(%)	Total(%)
Suitable		15 (13.4)	41 (31.5)	56 (23.1)
Hot		22 (19.6)	15 (11.5)	37 (15.3)
Wweet		13 (11.6)	22 (16.9)	35 (14.5)
Hot and salty		18 (16.5)	8 (6.2)	26 (10.8)
Hot and sweet		14 (12.5)	10 (7.7)	24 (9.9)
Hot and sour		4 (3.6)	6 (4.6)	10 (4.1)
Salty		2 (1.8)	7 (5.4)	9 (3.7)
Sour		3 (2.7)	5 (3.9)	8 (3.3)
Others		21 (18.7)	16 (12.3)	37 (15.3)
Total		112 (100.0)	130 (100.0)	242 (100.0)

Table 6-2. The taste specific favorite(like or dishke)

Sex		Taste specific favorite		
		Male(%)	Female(%)	Total(%)
Salty	like	39 (34.8)	30 (23.1)	69 (28.5)
	dislike	73 (65.2)	100 (76.9)	173 (71.5)
Sweet	like	45 (40.2)	45 (34.6)	90 (37.2)
	dislike	67 (59.8)	85 (65.4)	152 (62.8)
Hot	like	72 (64.3)	44 (33.8)	116 (47.9)
	dislike	40 (35.7)	86 (66.2)	126 (52.1)
Sour	like	23 (20.5)	24 (18.5)	47 (19.4)
	dislike	89 (79.5)	106 (81.5)	195 (80.6)

Table 7. The drinking habit

Sex		Drinking habit		
		Male(%)	Female(%)	Total(%)
Frequently		28 (25.0)	5 (3.9)	33 (13.6)
Occasionally		55 (49.1)	45 (34.6)	100 (41.3)
Not entirely		29 (25.9)	80 (61.5)	109 (45.1)
Total		112 (100.0)	130 (100.0)	242 (100.0)

서는 남자군이 65.2%로 여자군의 38.3%보다 훨씬 높은율을 보였다.

또 짠맛에 있어서도 매운맛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남자군이 34.8%로 여자군의 18.5%의 약 2배정도 높은 율을 보였음은 농촌지역에서의 자극성있는 음식물로 인한 질병 발생 소인에 대한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음식물의 맛별로 기호관계를 보면 Table 6-2에 보인 바와 같이 신맛, 짠맛, 단맛, 매운맛, 공히 “좋아하지 않는다”가 80.6%, 71.5%, 62.8%, 52.1%로서

“좋아한다”보다 높은 율을 보여 주었다. 다만 남자군에 있어서만 “매운맛이 좋다”고 하는자가 64.3%로 “좋지않다”고 하는 자의 35.7%보다 높은 율을 보였다.

조사대상 인구의 음주상태를 보면 Table 7에서와 같이 “음주를 한다”가 54.9%로 “하지않는다”의 45.1%보다 다소 높은 율을 보였다. 남자에 있어서는 74.1%가 “음주를 한다”고 하였으며 여자에 있어서는 38.5%가 “음주를 한다”고 하였다.

흡연상태에 있어서는 Table 8에서와 같이 “흡연

Table 8. The smoking habit

Sex	Male(%)	Female(%)	Total(%)
Smoking habit			
Frequently	52 (46.4)	23 (17.7)	75 (31.0)
Occasionally	34 (30.4)	42 (32.3)	76 (31.4)
Not entirely	26 (23.2)	65 (50.0)	91 (37.6)
Total	112(100.0)	130(100.0)	242(100.0)

Table 9. Family relation

Sex	Male(%)	Female(%)	Total(%)
Family relation			
With no family	3 (2.7)	10 (7.7)	13 (5.4)
With husband or wife	29 (25.9)	13 (10.0)	42 (17.3)
With several families	80 (71.4)	107 (82.3)	187 (77.3)
Total	112 (100.0)	130 (100.0)	242 (100.0)

Table 10. Religion

Sex	Male(%)	Female(%)	Total(%)
Religion			
Christian	10 (8.9)	22 (16.9)	32 (13.2)
Catholic	2 (1.8)	3 (2.3)	5 (2.1)
Buddist	44 (39.3)	50 (38.5)	94 (38.9)
Other religion	7 (6.2)	4 (3.1)	11 (4.5)
Unbeliever	49 (43.8)	51 (39.2)	100 (41.3)
Total	112 (100.0)	130 (100.0)	242 (100.0)

Table 11. Satisfaction to daily life circumstances

Sex	Male(%)	Female(%)	Total(%)
Satisfaction			
Be comfortable	68 (60.7)	75 (57.7)	143 (59.1)
Be uncomfortable	8 (7.2)	7 (5.4)	15 (6.2)
Can not respond	36 (32.1)	48 (36.9)	84 (34.7)
Total	112 (100.0)	130 (100.0)	242 (100.0)

한다"가 62.4%였으며 이 흡연자의 절반수인 31.0%가 "자주 흡연한다"라고 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군은 76.8%가 "흡연을 한다"고 하였으며 "자주 흡연을 한다"는 남자는 전 남자대상의 거의 절반인 46.4%였다. 여자군에 있어서는 여자 대상의 절반수인 50.0%가 "흡연을 한다"고 하였으며 "자주 흡연을 한다"는 여자는 전 여자대상의 17.7%였다.

3. 생활환경과 일상생활습관

설문조사대상 노인의 동거가족에 있어서는 Table

9에서와 같이 77.3%가 여러가족과 같이 살고 있었으며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노인은 17.3%였고 동거가족없이 혼자사는 노인은 5.4%였다.

종교관계는 Table 10에 보인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58.7%가 종교가 있었으며 종교가 없는 자는 41.3%였다. 종교는 불교가 38.9%로 가장 높은 율을 보였고 다음이 기독교 13.2%, 천주교 2.1%순이었다.

현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Table 11에 보인 바와 같이 59.1%가 "만족한다"라고 하였으며 40.9%가 "불만스럽다"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Table 12. Relation of participation in farm work

Participation	Sex		Total (%)
	Male (%)	Female (%)	
Frequently	35 (31.3)	40 (30.8)	75 (31.0)
Occasionally	66 (58.9)	60 (46.1)	126 (52.1)
Not entirely	11 (9.8)	30 (23.1)	41 (16.9)
Total	112 (100.0)	130 (100.0)	242 (100.0)

Table 13. The resting place

Resting place	Sex		Total (%)
	Male (%)	Female (%)	
Own house	61 (54.5)	96 (73.9)	157 (64.9)
Old aged hall	35 (31.3)	2 (1.5)	37 (15.3)
Friend's house	8 (7.1)	27 (20.8)	35 (14.4)
Others	8 (7.1)	5 (3.8)	13 (5.4)
Total	112 (100.0)	130 (100.0)	242 (100.0)

“모르겠다”라는 말은 조사방법에 있어서 표현상의 문제를 감안할 때 “불만스럽다”라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본다면 이 불만스러운 40.9%의 정신적·신체적 갈등은 노인보건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설문조사대상노인의 농사일 참여도에 있어서는 Table 12에서와 같이 응답자의 83.1%가 “농사일에 참여한다”라고 하였으며 이 중 31.0%는 “농사일을 많이하는 편이다”라고 하였다.

특히 남자에 있어서는 90.2%가 “농사일을 한다”고 하였으며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는 단 9.8%뿐이었다. 이는 농촌지역에 있어서 노인인구계층이 경제활동 노동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조사대상노인의 소일장소는 Table 13에 보인 바와 같이 자기 집이 64.9%로 가장 높은율을 보였으며, 남자군에 있어서는 자기집이 54.5%로 최고율을 보였으며 다음이 노인회관 31.3%, 친구집 7.1%순이었고, 여자군에 있어서는 자기집이 73.9%로 대부분이었으며 다음이 친구집 20.8%였다. 역시 남자는 자기집이나 노인회관이었고, 여자는 자기집이나 친구집이었다.

결 론

산간농촌지역, 19개 행정리, 1151세대, 인구 4591

명, 농가비율 78.4%인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에서 자발적으로 건강검사에 참여한 304명의 노인건강검사자료와 수동면 지역사회 표본추출노인 242명의 건강관리실상과 일상생활습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조사대상 농촌노인(이하 농촌 노인이라 함)의 67.4%가 몸이 아프다고 하였으며 건강검사 대상자의 68.1%가 질병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농촌노인의 2/3가 이미 질병에 이환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2) 농촌노인의 질병은 퇴행성관절질환이 30.0%로 최고율을 보였으며 다음이 만성위염 13.5%, 당뇨병 7.2%, 고혈압 6.3%, 빈혈 5.8%, 만성기관지염 4.8%순이었다.

3) 농촌노인의 질병관리상태는 아플때 “약을 먹는다”가 73.1%로 가장 높은율이었고 다음이 “의사를 찾는다” 16.1%였으며 “참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자도 9.1%나 되었다.

4) 농촌노인의 기호식품류는 “나물류”가 50.4%로 가장 높은율이었고 다음이 “육고기류” 38.8%였다. 성별로는 남자는 “육고기류”가 53.6%로 가장 높은율이었고 여자는 “나물류”가 70.0%로 가장 높은율이었다.

5) 농촌노인의 좋아하는 음식맛은 적당한 맛이 23.1%로 가장 높은율이었고 다음이 매운맛 15.3%, 단맛 14.5%, 맵고 짠맛 10.8%, 맵고 단맛 9.9%순이었다.

6) 농촌노인의 음식맛별 기호도는 신맛, 짠맛, 단맛, 매운맛 공히 “좋아하지 않는다”가 80.6%, 71.5%, 62.8%, 51.1%로 “좋아한다”보다 높은 율을 보였다. 다만 남자는 “매운맛이 좋다”가 64.3%로 “좋지않다”의 35.7%보다 높은 율을 보였다.

7) 농촌노인의 54.9%가 음주를 한다고 하였으며 62.4%가 흡연을 한다고 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 음주율은 74.1%였고 여자 음주율은 38.5%였으며 남자 흡연율은 76.8%였고 여자 흡연율은 50.0%였다.

8) 농촌노인의 77.3%가 여러가족과 같이 살고 있었고 동거가족이 부부뿐인 경우는 17.3%였으며 5.4%는 동거가족이 없었다.

9) 농촌노인의 41.3%가 종교가 없었으며 종교는 불교가 3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기독교 13.2%, 천주교 2.1%순이었다.

10) 농촌노인의 59.1%가 현재 생활환경에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40.9%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11) 농촌 노인의 83.1%가 “농사일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성별로는 남자에 있어서는 90.2%가 “농사일에 참여한다”고 하였으며 여자에 있어서는 76.9%가 “참여한다”고 하였다.

12) 농촌노인의 소일장소는 자기집이 64.9%로 가장 높은율이었다. 성별로는 남자는 자기집 54.5%, 노인회관 31.3%순이었고 여자는 자기집 74.9%, 친구집 20.8%순이었다.

References

- 1) 위자형 : 일부농촌지역주민의 면보건지도 이용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고찰 이화의대지 1988 ; 11 : 71-77
- 2) 강지용 · 위자형 · 박정선 :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주민들의 보건의료이용에 관한 K.A.P.조사 연구 이화의대지 1987 ; 10 : 137-145
- 3) 강지용 · 위자형 · 박정선 : 1일 섭취식품수와 영양 균형에 관한 조사연구 예방의학회지 1987 ; 20 : 352-361
- 4) 유승흠 · 조우현 · 박종연 · 이명근 : 도시지역 주민 의 의료이용양상과 그 결정요인 예방의학회지 1987 ; 20 : 287-300
- 5) 위자형 : 농촌가정경제가 주민보건지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이화의대지 1982 ; 5 : 233-237